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한인소망교회 비전

마태복음 11:28-30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Hope Church

주일1부예배 /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 본당 친교실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Hope
Church
Staff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유초등부	(청빙중)
영유치부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휴무장로	오귀록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이덕흥 이창진 정 민 이종학 윤순화
찬양인도	황규식
지휘자/서무	박은실
반주자	노윤실 사모 (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 (2부)
통역자	김예람 이화니
방송	조준한 김예람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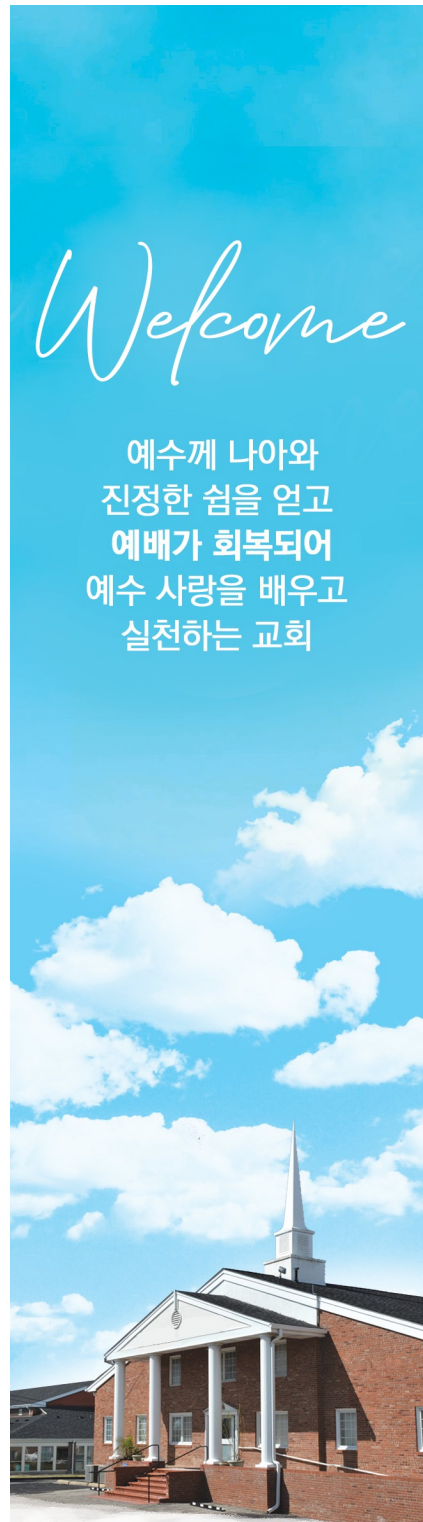
Missionaries

태국	배중원	요르단	
중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www.hopestl.org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쉼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10.9.2022

여호와를 찾으라!

1부 9 AM 2부 11:00 AM

LIVE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Psalm 98편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ah 53:5
찬송	찬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같이
기도	윤순기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찬송	찬393장 오 신실하신 주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아모스 Amos 5:4-24, OT p 1278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 김성직 목사
Sermon	Seek the LORD!
*결단의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같이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로 (1) 이단의 발흥은 성경의 예언이다. (마지막 때의 필연적 징조)

(2) 그러니 '왜' 이단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는지 괴로워하고 숨기기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대처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리라는 소망으로!

(3) 이단문제의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이단에 대한 '대처방안'이 교회의 주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흥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존재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증하기 위함이다.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단이 없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단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 존재 이유가 있다!"

(4) 이단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다른 이는 지쳐서 놓을 수 있는 손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은 결코 놓을 수 없는 손이다. 이단이 문제이면, 가족이 정답이다.

(5) 우리의 이단 대처의 목적은 '정죄와 분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다는 것이다.

-이단이라는 괴물에 대처하기 위한 명분으로, 우리의 모습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명분과 방법은 충분히 신앙적이어야 한다.

5. 양의 옷을 입은 이단, 민낯이 드러난 교회

(1) 이단 연구의 마무리 부분에 이르게 되면, 연구대상인 이단의 자리에 교회를, 교주의 자리에 기성교회 목회자를 대입해 보는 습관이 있다.

(2) 이단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단연구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교회를 이해할 때 이단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 이단연구는, 동시대 교회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이단교주의 신격화를 비판하면서, 일부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눈감을 수 없다. 이단교주는 이단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윤리적 목회자는 정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 개혁과 이단 대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기독교 역사 2천 년 동안 이단은 쉽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했지만, 교회는 영원하고 늘 승리해 왔다.

-이단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단규정의 주체인 교회가 문제인가? 교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가? 이러한 도발적인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교회만이, 현대 이단들의 파상공세에 당당하게 응전할 수 있다!

이단이 알고 싶다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이단이 알고 싶다 (탁지일)”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이단문제는 단순히 교리적 문제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삶을 빼앗고 파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눈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보자. (코로나19 속 신천지 문제)

2. 2020년 70주년을 맞은 6.25전쟁은 한국이단의 본격적인 태동기

(1) 전쟁의 불확실성은 삶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소망을 이용하여, 임박한 종말과 지상천국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피난지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를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2) 안타까운 사실은 전쟁 중에도 분열을 거듭하던 한국교회를 향한 불신이 이단 발흥을 촉진했다는 사실.

(3) 무력한 교회의 대안으로 자신들을 내세우며 곳곳에 미혹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4) 교회의 모습을 통해 동시대 이단의 실체를 간파할 수 있고, 반면 이단을 통해 동시대 교회의 문제점을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이런 보편적인 역학관계가 나타난다.

3. 한국교회의 예견된 위기, 예정된 회복

(1) 불안정한 한국 현대사는 이단들의 발흥, 성장,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50-60년대 (6.25전쟁과 전후의 상황): 이단 발흥을 위한 기름진 땅

-1970-80년대 (군사정권의 반공정책): 이단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1990년대 이후 (사회 민주화): 이단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계기

(2) 이단들의 발흥과 성장은 한국교회의 병리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뼈아픈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신행불일치의 모순으로 인해 고립무원의 형편에 처한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이단들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합리화.

-사회가 도리어 교회를 향해 '말씀대로 사는' 신행일치의 순기능적인 삶과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만이 이단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회복은 예정된 것이다.

-교회는 불멸하나, 이단은 필멸한다! 교회를 위한 참된 신학과 신앙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4. 정죄와 분리를 넘어, 치유와 회복으

성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Psalm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를 찾으라! (암 5:4-24)

<본문 속으로>

1. 우리가 살려면, 찾아야 하는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8절)
2. 본문에서 무리는 성문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나요? (10절)
3. 우리가 살려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14절)

[토요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쉽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

- 정 민 장로님: 요양원에서 다리 재활 중이십니다.
-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이십니다.
- 김기봉 장로님: 현재 담관암 진단을 받으시고 다른 검사들도 진행 중입니다.
-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이십니다.
- 이경진 자매님: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월요일]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화요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수요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

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목요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금요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행여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시는지, 돌아보세요.

2.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혹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방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 뜻을 말씀 따라 찾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3. 여호와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데는 Professional 처럼 프로가 되고, 악한 데는 Amateur 처럼 초보자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예배를 섬기는 이들

Oct 9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윤순기장로	도미니카 구역 (10월)	중국 구역	이화니	

Oct 16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헌화
	윤순화장로	도미니카 구역 (10월)	모로코 구역	김예람	

향기로운 예물 10/2/2022

주일	\$1,050	선교	\$0	주일학교/유스	\$4/\$5
십일조	\$5,015	구역선교	\$200	첫열매	\$405.44
감사	\$1,115			청년부 보조금	\$100
건축	\$50			방송문서헌금	\$100
				헌금총액	\$8,044.44

헌금외 수입금

				합계	
				입금총액	\$8,044.44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ttp://hopestl.org/online-donation>

1.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1) '매일 큐티하는 삶': 이제 새벽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토, 6AM)

(2) '성경 읽기':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읽기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오!

(3) '신앙서적 읽기': 안내포스터와 신간서적 책장이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사무실(박은실권사님)에 연락주시면,
개인이 한 번에 한 권씩 2주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4) '기독교영화 보기': 지난 목회자컬럼을 참고해 주세요.

2. Driveway 심방

코로나19의 상황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먼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 정기제직회

오늘 식사교제 후 1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4. 성경찬송가 구입

개역개정 한영성경찬송가 합본과 한글 성경찬송가 합본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도미니카 구역 (윤순화 구역장)과
이광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이민자 집사님 가정 위해서
- 사무엘, 사라 (손주)

교회행사

10월 9일 (주)
정기제직회